

## John Oswalt 박사, Kings, 세션 15, 2부, 열왕기상 19-20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여러 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술을 보았습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 다른 경우, 즉 완전하고 부당하게 예기치 않게 아합을 시리아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도로 다시 보면 위쪽에 아람(Aram)이라는 글자가 괄호 안에 시리아(Syria)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은 이 지역의 고대 이름입니다. 시리아는 현대 이름이다.

역시 지도 상단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입니다. 큰 대로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다메섹을 거쳐 갈릴리 바다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내려가 므깃도를 거쳐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는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다면 국제 고속도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주요 고속도로는 아카바 만에서 사막 가장자리를 따라 다마스쿠스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시 그들은 도로의 해당 구간을 통제합니다.

이번에도 시리아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트랜스요르단 고원 전체를 장악하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아람 왕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당신의 은과 금은 모두 내 것이며 당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중 가장 좋은 것도 내 것이라고 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3년간의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에이허브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주 왕이시니 나와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합이 하지 않는 일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 앞에 있는 우월한 힘에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글썽,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아, 그런데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일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누워 있는 반응은 시리아 왕 벤하닷을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 은금과 네 아내와 네 자녀 중 가장 좋은 것을 빼앗을 뿐 아니라 내 백성을 네 나라에 보내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골라 가져갈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왕이 그의 고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벤하닷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일, 내일은 내 부하들이 한 움큼씩이라도 사마리아의 흙을 남길 수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저는 Ahab의 반응을 정말 좋아합니다. 11절에서는 갑옷을 입은 자는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세요. 선지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한 내용을 통해 이 이야기 전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자, 아마도 이 사람은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거대한 군대가 보이나요? 오늘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요. 아합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시도록 할 권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은 행동, 단순히 그의 은혜의 표현인 행동을 취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비극, 어려움, 문제를 얼마나 쉽게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극에서 몇 번이나 구해주셨습니까? 그분은 몇 번이나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출해 오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선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몇 번이나 행하셨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불이 제단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태워버릴 때, 그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그 가능성을 제거할 것입니다. 더 강한 증거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 과분하고 기꺼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합아, 나는 너에게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나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아합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할 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게 될까요? Ahab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제 벤하닷에게 그를 섬기는 왕이 32명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위, 상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장군들은 이 매우 위험한 공격을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군사적으로 무력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은 NIV에 기록된 대로 각 지방 지휘관들 아래의 하급 장교들과 부관들 232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7,000명을 모았습니다. 글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체 숫자를 보면 그것이 작은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출발하였더니 벤하닷과 그와 동맹한 왕 32명이 자기 장막에서 취하고 취하였더라.

거짓된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당신을 데리러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아니었어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훌륭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7절,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평화를 위해 나왔으면 살려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갔다면 생포하십시오. 괜찮아요. 다 좋아.

지방 사령관 아래의 하급 장교들이 군대를 뒤따르고 성 밖으로 행진했습니다. 저마다 상대방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도망갔습니다.

벤하닷은 마병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서 말과 병거를 쳐서 압제하고 아람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더라. 예, 이것은 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사용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해 보이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은혜롭게 아합에게 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이다. 이스라엘의 자식 없는 세 어머니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걸 눈치채셨나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처음 세 어머니는 모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인 그의 전령은 가임 연령이 훨씬 넘은 노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신이다. 그것은 신이다. 장자와 은사, 강한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나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나요? 어부, 혁명가, 세금 징수원. 그 사람은 왜 당신과 나를 선택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토록 놀라운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 땅의 찌꺼기를 선택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영. 그는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큰 승리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친구들이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중위들이 우리를 그런 전투로 이끌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그것은 분명히 내 입장에서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어떻게 할지 보소서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칠 것임이니이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